



기획재정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1. 25.(금) 09:30	배포 일시	2022. 11. 25.(금) 07:3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	책임자	과 장 오기남 (044-215-5720)
		담당자	사무관 신채용 (shinchy@korea.kr)

최상대 제2차관, 재정비전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재정위험 극복과 3대 재정병폐 해소 방안 마련 강조

-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'22.11.25(금) 09:30, 한국경제·재정·행정학회,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「재정비전 컨퍼런스」에 참석하였음
- 「재정비전 컨퍼런스」는 각계 전문가들이 사회보험 재정고갈 등 우리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재정만능주의·재정 칸막이 구조·재정이기주의 등 3대 재정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음

재정비전 컨퍼런스 개요

- 일시 : '22.11.25(금) 09:30~18:00
- 장소 : 예금보험공사 대강당 19층
- 주관 : 한국경제·재정·행정학회, 한국조세재정연구원

	발제내용	발제자
발제①	▶ 건강보험 효율화 및 장기요양보험 지출적정화	김우현(시립대)
발제②	▶ 대학혁신-재정지원 연계강화	김진영(건국대)
발제③	▶ 중소·벤처기업 정책금융 개편	서경란(IBK)
발제④	▶ 기후대응 재정체계 구축	김현석(KDI)
발제⑤	▶ 중앙-지방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	김우철(시립대)
발제⑥	▶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재구조화	유태균(숭실대)
발제⑦	▶ 지역 균형발전 재정투자 성과제고	정종석(산업연)

【 최상대 차관 기조연설 주요내용 】

- 최상대 차관은 이날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“재정비전 2050 추진방향 및 전략”을 발표하였음
- 최 차관은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*에도 불구하고, 연내 국가채무 1,000조원 돌파가 예상되고, KDI 등 주요 기관들이 여전히 암울한 장기 재정전망을 내놓는 등 중장기 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
 - * ①건전재정기조로 '23년 예산안 편성 및 '22~'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
 - ②재정준칙 법제화 ③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개편 ④민간투자, 국유재산 등 가용자원 효율적 활용
- 특히, 인구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위기가 가시화되고 있고, 기후변화, 공급망·식량위기 등 불확실성의 확대가 우리 재정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,
- 재정만능주의, 재정 칸막이 구조, 재정이기주의 등 관행적·구조적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있으며, 저성장양극화 극복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민 요구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
- 또한, 최차관은 이러한 재정위험과 재정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재정개혁은 지금 시작해도 20~30년 후에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면서, 향후 5~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「재정비전 2050」 수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
- “신뢰”, “지속가능”, “삶의 질 향상”을 대변하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며,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전략 및 전략별 재정개혁과제를 검토하고 있고,

❖ 4대 핵심전략별 추진과제(잠정 예시 과제)

 - 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: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개편, 대학혁신-재정지원 연계 강화
지역 균형발전 투자 성과제고,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재구조화 등
 - ② 사회보험리스크 선제대응 :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, 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 효율화 등
 - ③ 미래위험 대비 재정투자체계 : 기후대응 재정체계 구축, 재난대응 자원 효율적 운용체계 마련 등
 - ④ 글로벌 재정운용시스템 : 재정준칙 법제화, 지속가능한 재정운용관리체계 구축,
중앙-지방간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 등
-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

- 마지막으로, 최 차관은 「재정비전 2050」은 관계부처의 협조와 중앙-지방 정부의 협력은 물론, 국민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
- 금번 재정비전 컨퍼런스를 비롯해 대국민 온·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한 전문가·대국민 의견수렴을 지속하면서 부처 간 협의도 강화하고,
 - 특히, 2050년에는 우리 사회 주역이 되는 현 2030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미래세대 간담회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음
- 아울러,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재정개혁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,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, 「재정비전 2050」 수립 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언급

【 주요 발제 내용 】

※ 금번 컨퍼런스 발제와 토론내용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으로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며, 정부는 발제 내용과 현장의 토론내용을 검토하여 향후 재정비전 수립시 참고할 계획

- 첫 번째 주제인 “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효율화”를 발제한 김우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향후 의료 및 돌봄 수요 증가로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우려하면서,
 - 사회보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, 장기요양보험은 분절적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
- 두 번째 주제인 “대학혁신-재정지원 연계강화”를 발제한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낮은 재정투자 수준, 규제와 연계된 재정지원 방식 등이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,
 - 대학의 자율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허용-사후규제 방식으로 대학규제를 전환하고, 학생수·취업률 등 실질 성과 중심의 포괄적 재정지원 확대 등 대학 재정지원 방식의 전면 개편을 제안하였음
- 세 번째 발표에서 서영란 IBK경제연구소 실장은 “중소·벤처기업 정책 금융 개편”과 관련하여 고성장기에 유효했던 기존 대출중심의 정책금융 지원방식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,

- 정책자금 총량관리, 모험자본 활성화 등 대출과 투자의 균형, 창업기업 보증 확대, 공공보험제도 활성화 등 보증과 보험 연계, 비대면 디지털화를 통한 정책금융기관의 질적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
- 네 번째 주제인 "기후대응 재정체계 구축"을 발제한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탄소사회로 전환되는 상황에서, 세제 및 회계기금 등 우리 재정체계는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,
 -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체할 수 있는 세제 도입, 에너지 전환 투자 효율화를 위한 회계·기금 재구조화 등 중장기 전략 수립을 제안하였음
- 다섯 번째 주제인 "중앙-지방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"을 발제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중앙과 지방재정의 협력적 공동 대응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,
 - 이를 위해 내국세의 약 40%를 법정률로 지방에 이전하고 있는 지방 교부세,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경제·재정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 및 해외사례를 제시하였음
- 여섯 번째 발표에서 "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재구조화"와 관련하여 유태균 숭실대 교수는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보장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부상하였으나, 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하며,
 -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보장을 위해서는 소득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非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서비스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,
 - 이를 위해,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부과 체계 설계, 사회서비스의 선택·조합을 통한 다양한 수요자 요구 충족이 필요하다고 제언
- 일곱 번째 발표 주제인 "지역 균형발전 재정투자 성과제고"에 대해 정종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, 균형발전 사업의 통합관리체제 미흡 및 지역균형발전 특구의 중복·과잉 문제를 지적하며,
 -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균특회계의 사업 범위 조정, 및 포괄보조금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, 각종 지역특구의 효율적 재설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